

## 1 품사 분류의 기준

형태	기능	의미
불변어	체인	명사
		대명사
		수사
	관계언	조사
		관형사
		부사
독립언	감탄사	
	동사	
가변어	용언	형용사

## 2 국어의 문장 성분 7가지

주성분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부속 성분	관형어
	부사어
독립 성분	독립어

문장 성분에 대해서는 II-01. 문장의 구조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참고하도록 한다.

- 고유 명사가 보통 명사처럼 쓰일 때도 있다.
- 조선 시대 때 가장 유명한 과학자는 정영실이다. → 고유 명사로 쓰임
- 과학고는 미래의 정영실들을 배출하는 학교이다. → 보통 명사로 쓰임

의존 명사는 실질적인 의미가 희박한 형식성 의존 명사(것, 줄 등)와 수량 등의 단위를 나타내는 단위성 의존 명사(개, 켤레, 명, 원 등)로 나뉜다.

## 3 미지칭/부정칭/재귀 대명사

- 미지칭**: 특정 대상을 지시하지만 대상의 이름이나 신분은 모를 때 사용하는 대명사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 부정칭**: 특정 대상이 아닌, 정해지지 않은 대상을 지시할 때 사용하는 대명사 (누구든지 할 수 있다.)
- 재귀**: 문장의 앞에서 사용된 3인칭 주어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대신 사용하는 대명사 (철수는 자기 학교에 갔다.)

## 4 대명사 '당신'의 다의적 의미

- '칭자'를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
  - 당신은 누구시요?
- 부부 사이에서, 상대편을 높이는 2인칭 대명사
  - 당신, 요즘 많이 피곤하시죠?
- 대상과 싸울 때, 상대편을 낮추는 2인칭 대명사
  - 당신? 누구한테 당신이!
- 재귀 대명사 '자기를 아주 높여 이르는 말(3인칭)
  -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장서를 소중히 다루셨다.

## 1 품사의 정의와 분류의 기준 \*\*

### 1. 품사(品詞)의 정의

- 단어들을 성질이 공통된 것끼리 모아서 분류하여 놓은 갈래
- 여러 가지 단어를 문법적인 특성에 따라 몇 갈래로 묶어 놓은 것

### 2. 품사 분류의 기준 ①

- 단어의 **형태 변화 여부**에 따라
  - '불변어(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와 '가변어(형태가 변하는 단어)'로 분류
- 문장 속에서 단어가 담당하는 **기능(역할)**에 따라
  - '체인, 관계언, 수식언, 독립언 / 용언'으로 분류
- 비슷한 **의미 특성**(같은 품사에 속한 단어 자체가 공통적으로 지닌 의미)을 가진 것에 따라
  - '명사, 대명사, 수사 / 조사 / 관형사, 부사 / 감탄사 / 동사, 형용사로 분류

## 2 체언 : 명사, 대명사, 수사 \*\*\*

### 1. 체언(體言)

문장의 중심으로 주로 주어, 목적어, 보어 등의 역할을 하는 단어. 문장에서 주로 조사와 결합하여 쓰이며,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 명사(名詞)**: 사람이나 사물, 장소 등의 이름(구체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 보통 명사**: 어떤 속성을 지닌 대상에 두루 쓰이는 이름 (사람, 책, 학생, 가족) 사용 범위에 따른 분류
- 고유 명사**: 특정한 개체를 다른 것과 구분하기 위해 붙인 이름 (백두산, 한강) 사용 범위에 따른 분류
- 자립 명사**: 혼자서 쓰일 수 있는 명사 (의자, 꽃, 사과) 자립성 유무에 따른 분류
- 의존 명사**: 반드시 그 앞에 꾸며 주는 말, 곧 관형어가 있어야 쓰일 수 있는 명사 (것, 따름, 뿐, 데, 수, 리, 듯, 줄)

- 대명사(代名詞)**: 어떤 대상을 가리킬 때에 그 대상의 이름을 대신하여 사용하는 단어 ①

- 인칭 대명사**: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
  - 1인칭: 나, 저, 우리, 저희, 소인, 짐(朕) 등
  - 2인칭: 너, 자네, 그대, 당신, 너희, 여러분 등
  - 3인칭: 그, 이분, 그분, 저분, 이이, 그이, 저이 등

- 지시 대명사**: 사물, 장소 등을 가리키는 대명사 (이것, 그것, 저것, 여기, 거기, 저기)

- 수사(數詞)**: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

- 양수사**: 수량을 나타내는 말 (하나, 둘, 셋, 일, 이, 삼)
- 서수사**: 순서를 나타내는 말 (첫째, 둘째, 셋째, 제일, 제이, 제삼)

## 3 관계언 : 조사 \*\*\*\*\*

자립성 있는 말 뒤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의미를 더해 주는 단어. 문장에서 주로 체언에 붙어 쓰이나, 용언이나 부사, 어말 어미의 뒤에 붙어 쓰일 수도 있다.

### 1. 조사의 종류

- 격 조사: 앞말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도록 해 주는 조사
  - 주격 조사: 앞말을 주어로 만들어 주는 조사 (이/가, 께서, 에서)
  - 서술격 조사: 앞말을 서술어로 만들어 주는 조사 (이다)
  - 목적격 조사: 앞말을 목적어로 만들어 주는 조사 (을/를)
  - 보격 조사: 앞말을 보어로 만들어 주는 조사 (이/가)

- 관형격 조사: 앞말을 관형어로 만들어 주는 조사 (의)
- 부사격 조사: 앞말을 부사어로 만들어 주는 조사 (에, 에게, 에서, (으)로, 와/과)
- 호격 조사: 앞말을 독립어(부름말)로 만들어 주는 조사 (아, 야, (이)여)

- 접속 조사: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조사

- 와/과(주로 비격식체, 문어체에서 쓰임) (우리는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위해 싸웠다.)
- 하고(주로 비격식체, 구어체에서 쓰임) (배하고 사과하고 감을 가져오너라.)
- (이)랑(주로 비격식체, 구어체에서 쓰임) (백화점에 가서 구두랑 모자랑 원피스를 샀어요.)

- 보조사: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조사 ⑦

- 은/는(화제, 대조, 강조) (이 책은 친구가 빌려 왔다. / 철수는 국어는 잘하는데, 수학은 못한다.)
- 도(역시, 동일) (반찬도 좀 먹어라. / 고구마는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는다.)
- 만(유일, 단독, 한정) (그를 만나야만 문제가 해결된다. / 소설만 읽지 말고 시도 읽어라.)
- 까지(극단) (너까지도 나를 못 믿겠니? / 이 작은 시골에서 대통령까지 나오다니.)
- 마저(극단) (너마저 나를 떠나는구나. / 노인과 어린이들마저 전쟁에 동원되고 있다.)
- 조차(첨가) (철수조차 시험에 떨어졌다. / 한자는 쓰기도 어려운 데다 읽기도 어렵다.)
- 부터(출발점)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썽이다. / 너부터 먼저 먹어라.)
- 요(상대 높임) (돈이 없어요. / 그렇게 해 주시지만 하면요, 정말 감사하겠어요.)

### 2. 형태가 동일하지만 종류가 서로 다른 조사 ⑧

- 주격 조사 '이/가'와 보격 조사 '이/가'

- 물이 얼음이 되다 → 밑줄 친 '이'는 '물이 서술어 '되다'의 주어임을 표시하므로 주격 조사
- 물이 얼음이 되다 → 밑줄 친 '이'는 '얼음'이 서술어 '되다'의 보어임을 표시하므로 보격 조사
- ※ '보어'란 서술어 '되다/아니다' 앞에 '이/가'가 붙어 나타나는 문장 성분이다.

- 주격 조사 '에서'와 부사격 조사 '에서'

- 우리 학교에서 대회를 열었다. → 밑줄 친 '에서'는 앞말이 '단체'임을 의미하는 주격 조사
- 우리 학교에서 대회가 열렸다. → 밑줄 친 '에서'는 앞말이 '장소'임을 의미하는 부사격 조사
- ※ '에서'가 주격 조사일 때는 '이/가'로 대체 가능하다.

- 부사격 조사 '와/과'와 접속 조사 '와/과'

- 나는 엄마와 많이 닮았다. → 밑줄 친 '와'는 '엄마'와 '많이'를 이어 주는 접속 조사가 아니라, '엄마'가 '나'의 닮음의 기준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 나는 배와 사과를 먹었다. → 밑줄 친 '와'는 '배'와 '사과'를 이어 주는 접속 조사

## 4 용언 : 동사, 형용사 \*\*\*\*\*

### 1. 용언(用言)

문장에서 사물의 움직임이나 작용, 상태나 성질 등을 서술하는 기능을 하는 단어.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며, 보조사가 결합하기도 한다.

- 동사(動詞): 사물의 움직임,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

- 자동사: 움직임, 작용이 그 주어에만 관련되는 동사 (뛰다, 걷다, 가다, 놀다, 살다)
- 타동사: 움직임, 작용이 다른 대상, 즉 목적어에 미치는 동사 (먹다, 잡다, 부르다, 누르다)

- 형용사(形容詞): 사물의 상태,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

- 성상 형용사: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예쁘다, 고요하다, 달다, 향기롭다)
- 지시 형용사: 성질이나 상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나타내는 형용사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어떠한)

### 2. 본용언과 보조 용언 ⑨

- 본용언: 문장 안에서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용언. 서술의 주된 의미를 나타낸다.
  - 나는 친구가 준 책을 보았다. / 나는 사과를 먹고 버렸다.
- 보조 용언: 혼자서 쓰이지 못하고, 본용언의 뒤에 붙어서 그 의미를 더해 주는 용언
  - 나는 친구가 준 책을 읽어 보았다. / 나는 사과를 먹어 버렸다.

보조사를 보고 문장 성분을 판단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이 책은 내 동생이 빌려 왔다.'에서 '책은'은 서술어 '빌려 왔다'의 대상이 되므로 목적어로, 여기서 '은'은 목적격 조사 '을' 자리에 들어가 '책'이 문장의 화제임을 나타내고 있다. '은'은 절대로 주격 조사가 아니다.

### 3. 보조사 '요'

보조사 '요'는 모든 문장 성분 뒤에 붙어 쓰일 수 있다.  
 (나가요 지금요 집에를요 가야만요 하거든요.)

### 4. 조사의 특징

- 대체로 체언 뒤에 붙지만, 경우에 따라 서 조사, 부사, 용언 등에도 붙는다.
  - 너에게만 줄게. → 조사 뒤
  - 일을 많이도 했다. → 부사 뒤
  - 얼굴이 예쁘지는 않다. → 용언 뒤
- 자립성이 없지만 단어로 인정하며, 생략할 수 있다.
- 활용하지 않는다. 단, 서술격 조사 '이다'는 다른 조사와 달리 '이고, 이니와 같이 형태가 변하므로 가변어에 속한다.

### 5. 용언의 기본형

용언은 문장에서의 쓰임에 따라 그 형태가 다양하게 변하는데, 그러한 여러 형태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기본형'이라고 한다. 기본형은 용언의 어간에 어미 '-다'를 붙인 형태로, 사전에서 용언을 찾을 때에는 이 기본형으로 찾아야 한다.

### 6.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법

	동사	형용사
현재 시제 (-는/-는다)	○	×
명령형 어미 (-아라/어라)	○	×
청유형 어미 (-자)	○	×
목적, 의도의 어미(-러/려)	○	×
진행형 표현 (-고 있다)	○	×

동사는 형용사와 달리 활용에 제한이 없다.

### 7. 본용언과 보조 용언

보조 용언은 본용언의 활용형에 연결되어 쓰이는데, '-아/어, 게, 지, 고'와 같은 연결 어미 뒤에 붙어 쓰이기도 하고, 그 이외의 활용형 뒤에 붙어 쓰이기도 한다.  
 (사과를 먹어 보다.  
 • 차가 빨리 가기도 한다.)

① 용언의 어간과 어미

어간과 어미의 구분이 쉽게 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용언 기본형의 어미를 직접 바꾸어 보면서 스스로 판별해 보는 것이 가장 좋다. 예를 들어 '자다, 자고, 자니, 자면서, 잘'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인 '자-'가 어간이고, 어간 '자-' 뒤에 연결된 '-다, -고, -니, -면서, -르' 등이 어미이다.

② 어말 어미의 체계

종결 어미	평서형(-다, -네)
	감탄형 (-구나)
	의문형 (-니, -르까)
	명령형(-아)라)
연결 어미	청유형 (-자)
	대동적 (-고)
전성 어미	종속적 (-며)
	명사형 (-고)
	관형사형 (-ㄴ)
	부사형 (-게)

위의 표에 제시된 어말 어미들은 II-02 문법 요소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참고하도록 한다.

③ 불규칙 용언의 유형이 많아서 자칫 국어에는 규칙 용언보다 불규칙 용언이 더 많은 것처럼 생각하기 쉬우나 그렇지 않다. 당연히 규칙 용언이 불규칙 용언보다 더 많다.

④ 어간에 '르'가 들어간 용언 중 '이르다'는 그 의미에 따라 불규칙 용언의 유형이 다르다.

- 주의하라고 이르다[告].  
→ 이르 + + -어 → 일러  
∴ '르' 불규칙 용언(어간)
-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투].  
→ 이르 + + -어 → 일러  
∴ '르' 불규칙 용언(어간)
- 목적지에 이르다[到].  
→ 이르 + + -어 → 이르러  
∴ '러' 불규칙 용언(어미)

⑤ '구' 불규칙에 해당하는 용언은 '푸다' 뿐이다.

⑥ '주다'의 활용형 '주어'가 '줘'로 축약되거나, '사다'의 활용형 '사아'에서 '아'가 탈락되어 '사'가 되는 것은,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축약/음운 탈락 현상이므로, 불규칙 용언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

⑦ '공부하다'나 '행복하다'와 같이 '하다'로 끝나는 동사와 형용사 모두 '어' 불규칙 용언에 해당한다.

⑧ 단, 'ㅎ' 불규칙 용언이 어미 '-네'와 결합할 때는 어간 끝의 'ㅎ'이 탈락하기도 하고 탈락하지 않기도 한다. 예를 들어 '까맣다'는 '까말네/까마네', '하얗다'는 '하얗네/하아네', '조그맣다'는 '조그말네/조그마네'로 활용한다.

3. 용언의 활용

(1) 활용 : 용언은 어간과 어미로 구성되는데, 문장에서 기능에 따라 형태가 다양하게 변한다. 이처럼 용언의 어간에 여러 어미가 결합하여 형태가 변하는 현상을 '활용'이라고 한다. ①

어간(語幹)	활용할 때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부분
어미(語尾)	활용할 때 어간 뒤에 연결되어 여러 가지 문법적인 의미를 더해 주는 부분

(2) 어미의 종류

① 어말 어미 : 용언의 끝자리에 놓이는 어미로, 반드시 있어야 함 ②

- 종결 어미 : 문장을 끝맺는 기능을 하는 어미
- 연결 어미 : 앞 문장과 뒤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어미
- 전성 어미 : 용언이 문장에서 체언, 관형어, 부사어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는 어미

② 선어말 어미 : 어말 어미의 앞에 놓이는 어미로, 없을 수도 있고 둘 이상이 올 수도 있음, 높임(-시-), 시제(-았-, '-겠-)'의 의미를 더해 줌

※ 용언 '읽었다', '읽었고', '읽었음'의 구성



(3)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

① 규칙 활용 : 어간에 어미가 결합할 때, 어간·어미의 기본 형태가 유지되거나, 형태가 변한다고 해도 그 현상이 규칙적이어서 일관된 설명이 가능한 활용

종류	변화 양상	㉠
'르' 탈락	어간의 '르' 받침이 'ㄴ, ㅁ, ㅅ' 및 '-(으)오, -(으)르' 앞에서 탈락	놀다(놀-+ -니 → 노니), 팔다(팔-+ -는 → 파는)
'-' 탈락	모음 어미 앞에서 어간의 '-가' 탈락	바쁘다(바쁘-+ -아 → 바빠), 잠그다(잠그-+ -아 → 잠가)

② 불규칙 활용 : 어간에 어미가 결합할 때, 형태가 변하는 것이 불규칙적인 활용 ③

종류	변화 양상	㉠	규칙 용언	
어간 바뀜	'ㅅ' 불규칙	모음 어미 앞에서 어간 끝 'ㅅ'이 탈락	• 짓다(짓-+ -어 → 지어) • 젓다(젓-+ -어 → 저어) • 낫다(낫-+ -아 → 나아)	• 벗다(벗-+ -어 → 벗어) • 빚다(빚-+ -어 → 빚어)
	'ㄷ' 불규칙	모음 어미 앞에서 어간 끝 'ㄷ'이 'ㄹ'로 바뀜	• 걷다(걷-+ -어 → 걸어) • 신다(신-+ -어 → 신어) • 묻다[問] (묻-+ -어 → 물어)	• 쏘다(쏘-+ -아 → 쏘아) • 묻다[埋] (묻-+ -어 → 묻어)
	'ㅃ' 불규칙	모음 어미 앞에서 어간 끝 'ㅃ'이 'ㅍ/우'로 바뀜	• 돕다(돕-+ -아 → 도와) • 덤대(덤-+ -어 → 더워) • 굶대[飢] (굶-+ -어 → 구워)	• 뽀다(뽀-+ -아 → 뽀아) • 굶대[曲] (굽-+ -어 → 굶어)
	'ㄹ' 불규칙 ④	모음 어미 앞에서 어간 끝 'ㄹ' 탈락, 'ㄹ' 덧생김	• 흐르다(흐르-+ -어 → 흘러) • 다르다(다르-+ -아 → 달라) • 부르다(부르-+ -어 → 불러)	치르다(치르-+ -어 → 치러)
어미 바뀜	'ㄷ' 불규칙	모음 어미 앞에서 어간 끝 'ㄷ' 탈락	푸다(푸-+ -어 → 퍼 ⑤)	• 주다(주-+ -어 → 주어/줘) • 두다(두-+ -어 → 두어/뒤) ⑥
	'여' 불규칙	어미의 첫소리 '아/어'가 '여'로 바뀜	• 하다(하-+ -아 → 하여) ⑦	• 사다(사-+ -아 → 사아) • 차다(차-+ -아 → 차아) ⇒ 모음 탈락하여 '사'와 '차'가 됨
어간/어미 함께 바뀜	'ㄹ' 불규칙	어미의 첫소리 '어'가 '러'로 바뀜	• 이르다[到] (이르-+ -어 → 이르러) • 푸르다(푸르-+ -어 → 푸르러)	들르다(들르-+ -어 → 들러) ⇒ 규칙 활용 중 '- 탈락
	'ㅎ' 불규칙	어간의 'ㅎ'이 탈락 ⑧ 어미 '으'가 탈락 ⑨ 어미 '아/어'가 '애/에'로 바뀜	㉠ 까맣다(까말-+ -은 → 까만) 하얗다(하말-+ -은 → 하얀) ㉡ 까맣다(까말-+ -아 → 까매) 하얗다(하말-+ -아 → 하애) ⑥	• 좋다(좋-+ -아 → 좋아) • 놓다(놓-+ -아 → 놓아)

5 수식언 : 관형사, 부사 \*\*

1. 수식언(修飾言)

문장에서 뒤에 오는 말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단어

(1) 관형사(冠形詞) : 체언 앞에 놓여서 체언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단어,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으며,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수사 앞에는 오지 않는다. ⑧

- ① 성상 관형사 : 사물의 성질, 상태를 꾸며 주는 관형사 ㉠ 새 옷, 흰 책, 온갖 물건
- ② 지시 관형사 :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관형사 ㉡ 이 의자, 그 사람, 저 자전거, 다른 ㉢ 집
- ③ 수 관형사 : 수량, 순서 등 수 개념을 나타내는 관형사 ㉣ 두 사람, 세 자루, 일곱째 딸 ④

(2) 부사(副詞) : 문장의 어느 한 성분(주로 용언, 부사나 관형사, 체언 등)이나 문장 전체의 의미를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단어. 형태의 변화가 없으며, 보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 ⑤

- ① 성분 부사 : 문장의 특정 성분을 꾸며 주는 부사
  - 성상 부사 : 문장의 한 성분을 꾸며 주며, '어떻게'의 의미를 지니는 부사 ㉤ 너무 배고프다, 빨리 가라
  - 지시 부사 : 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부사 ㉥ 미리 오너라, 그리 앉아라
  - 부정 부사 : 용언의 의미를 부정하는 부사 ㉦ 안 예쁘다, 못 찾았다
- ② 문장 부사 :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
  - 양태 부사 :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부사 ㉧ 설마 네가 그랬니?
  - 접속 부사 :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을 이어 주는 부사 ㉨ 그러나, 그런데, 및

6 독립언(獨立言) : 감탄사(感歎詞) \*

- 문장에서 다른 문장 성분들과 문법적 관계를 맺지 않고 비교적 독립적으로 쓰이는 단어  
- 부름 ㉩, 대담, 느낌, 놀람 등을 나타내며,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의 변화가 없고,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 여보세요! 말 좀 물읍시다. / 네, 알겠습니다. / 안, 드디어 비가 오구나.

7 품사의 통용 \*\*\*

하나의 단어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품사에 속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들은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 품사에 속하고 사전에서도 두 가지 품사를 모두 인정한다. 이를 품사의 통용이라고 한다.

1. 명사 vs 조사

-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 이 문장에서의 '만큼'은 관형어 '참을'의 꾸밈을 받고 있고, '참을' 없이 자립적으로 쓰일 수 없으므로 의존 명사이다.
- 나도 그 사람만큼 할 수 있다. → 이 문장에서의 '만큼'은 체언 '사람' 뒤에 결합하였으므로 조사이다.

2. 수사 vs 관형사

- 이 더하기 삼은 다섯이다. → 이 문장에서의 '다섯'은 뒤에 조사 '이다'가 결합하였으므로 수사이다.
- 학교에 다섯 사람이 모였다. → 이 문장에서의 '다섯'은 뒤에 오는 체언 '사람'을 꾸며 주고 있으므로 관형사(수 관형사)이다.  
※ 조사가 붙지 않고, 명사를 꾸며 주면 관형사에 해당한다.

3. 명사 vs 관형사

- 철수는 지적으로 보인다. → 이 문장에서의 '지적'은 뒤에 조사 '으로'가 결합하였으므로 명사이다.
- 철수는 지적 수준이 높다. → 이 문장에서의 '지적'은 뒤에 오는 체언 '수준'을 꾸며 주고 있으므로 관형사이다.

4. 형용사 vs 동사

- 오늘은 달이 매우 밝다. → 이 문장에서의 '밝다'는 주어 '달'이 매우 밝은 상태임을 나타내므로 형용사이다.
- 이제 곧 날이 밝는다. → 이 문장에서의 '밝는다'는 날이 어두웠다가 환해지는 상태 변화를 나타내므로 동사이다.

⑧ 관형사와 관형어의 구별

'나의 집', '예쁜 꽃'에서 '나의'와 '예쁜'은 관형사가 아니다. '나의'는 '나'라는 대명사와 '의'라는 조사로 구성되어 있고, '예쁜'은 '예쁘다'라는 용언(형용사)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결합하여 관형사형으로 쓰인 것이다(용언의 관형사형). 이들은 관형사가 아니라 관형어로, 이와 관련해서는 II-01. 문장의 구조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참고하도록 한다.

⑨ '다른'의 품사 구별

'다른'은 관형사와 '형용사의 관형사형'으로 모두 쓰이므로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 ㉠ 다른 사람들은 어디 있어?
- ㉡ 성격이 다른 쌍둥이가 있다.

㉠, ㉡의 밑줄 친 '다른'은 각각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모두 관형사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의 '다른'이 영어 단어로 치면 'other'의 의미를 갖고 있는 관형사인 반면, ㉡의 '다른'은 영어 단어로 치면 'different'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다르다'라는 형용사의 관형사형이다. 즉, ㉠의 '다른'은 '다르다'라는 용언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결합한 것이다. 이 ㉠의 '다른'은 형용사이므로 주어 '성격'을 서술해 주며, 기본형인 '다르다'로 환원할 수 있다. 반면, ㉡의 '다른'은 관형사이므로 그럴 수 없다. 이렇듯 활용 유무와 서술성 유무 등으로 관형사와 용언의 관형사형을 구별할 수 있다.

⑩ 관형사의 배열 순서

관형사는 여러 개가 동시에 나타날 때 대개 일정한 배열 순서를 지니고 있다. 지시 관형사가 맨 앞에 오고, 수 관형사가 그 뒤에, 성상 관형사가 맨 뒤에 온다. ㉢ 저 모든 새 집을 한 회사가 짓고 있다.

⑪ 부사의 배열 순서

부사는 여러 개가 동시에 나타날 때 대개 일정한 배열 순서를 지니고 있다. 지시 부사가 맨 앞에 오고, 성상 부사가 그 뒤에, 부정 부사가 맨 뒤에 온다. ㉣ 그는 저리 높이 못 뛴다.

⑫ 감탄사의 변별

부르는 말이지만 호격 조사가 결합되거나 실제 이름으로 상대를 부르는 경우에는 감탄사가 아니다. ㉤ 인호야, 어디 가니?  
• 박인호, 같이 가자!

또한 문장 첫머리에 놓인 제시어 역시 감탄의 느낌이 있어도 감탄사가 아니다. ㉥ 사람, 이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인가!

## 1 형태소와 단어 \*\*\*

### 1. 형태소(形態素)

#### (1) 형태소의 정의

- 일정한 뜻을 가진 말의 가장 작은 단위
- 의미를 가진 것으로는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더 이상 분석하면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는), 최소의 의미 단위

- ㉮ • 하늘 : 하늘(형태소 1개)
- 새파란 : 새/파랗-/-ㄴ(형태소 3개)
- 보다 : 보-/-다(형태소 2개)

#### (2) 형태소의 종류

##### ① 자립성 유무에 따라

종류	개념	㉮
자립 형태소	홀로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는 형태소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등
의존 형태소	다른 말에 기대어서만 쓰일 수 있는 형태소	조사, 용언의 어간과 어미, 접사 등

##### ② 실질적 의미 유무에 따라(또는 의미의 유형에 따라)

종류	개념	㉮
실질 형태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 형태소	자립 형태소, 용언의 어간 등 <sup>1)</sup>
형식 형태소 (문법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는 없이, 문장이나 단어의 형식을 갖추도록 도와주거나 문법적인 기능을 표시 하면서 미묘한 느낌의 차이를 만드는 형태소	조사, 용언의 어미, 접사 등

##### ㉮ 형태소 분석의 예

나는 돌다리를 밟고 물을 건넜다											
나	는	돌	다리	를	밟	고	물	을	건너	었	다
자립	의존	자립	자립	의존	의존	의존	자립	의존	의존	의존	의존
실질	형식	실질	실질	형식	실질	형식	실질	형식	실질	형식	형식

\* '건넜다(기본형 : 건너다)'는 '건너-'(용언의 어간)+'-었-'(선어말 어미)+'-다'(종결 어미)로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형태소 분석을 해야 한다.

### 2. 단어(單語)

#### (1) 단어의 정의

- 문장에서 자립할 수 있는 말의 가장 작은 단위
- 자립할 수 있는 말, 또는 자립할 수 있는 말에 붙어서 쉽게 분리가 되는 말
- 조사는 자립성은 없으나 앞말과 쉽게 분리되므로 단어로 인정되며,<sup>2)</sup> 의존 명사와 보조 용언 역시 자립성은 부족하지만 하나의 단어로 인정된다.

##### ㉮ 단어 분석의 예

나는 돌다리를 밟고 물을 건넜다.							
나	는	돌다리	를	밟고	물	을	건넜다

- \* '돌다리'는 '돌'과 '다리'로 다시 나누어지지만, '돌'과 '다리'가 결합하여 '돌다리'라는 새 단어가 되었으므로 그 전체를 하나의 단어로 취급한다.
- \* '밟고(기본형 : 밟다)'와 '건넜다(기본형 : 건너다)'는 더 작은 형태소 단위로 나누어지지만 '밟-'이나 '건너-'가 각각 뒤에 오는 어미 '-고', '-었-', '-다'와 어울려야만 자립하여 쓰일 수 있으므로, 그 전체를 하나의 단어로 취급한다.
- \* '는', '를', '을'과 같은 조사는 자립할 수 없지만, 각각 자립할 수 있는 '나', '돌다리', '물'의 뒤에 붙어 쉽게 분리할 수 있으므로 단어로 취급한다.

#### 1 실질 형태소와 자립 형태소

홀로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는 모두 실질 형태소에 해당한다. 자립하여 쓰일 수 없는 의존 형태소 중에서는 유일하게 용언의 어간만이 실질 형태소에 포함된다.

#### 2 조사의 단어 인정

조사는 자립성은 없지만 앞에 오는 말(주로 체언)과 쉽게 분리될 수 있다. '영희가 문을 열었다.'라는 문장에서 조사 '가'와 '을'을 앞말과 분리하면 '영희'와 '문'이 남게 되는데 이들은 모두 자립할 수 있다. 반면, 어미 '-었다(-었- + -다)'는 어간 '영-'과 결합하여야만 온전한 하나의 단어가 된다. 어간과 어미를 분리하고 나면 둘 다 자립할 수 없다. 이처럼 조사와 어미는 둘 다 의존적이지만 앞말과의 분리성이 강한 조사는 단어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어미는 단어로 인정하지 않는다.

## 2 단어의 형성 \*\*\*\*\*

### 1. 단어 형성의 요소 - 어근과 접사<sup>3)</sup>

- (1) 어근 : 단어를 이루는 형태소 중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
  - ① 어근이 하나인 경우 ㉮ 하늘, 구름, 집, 먼저
  - ② 어근이 둘인 경우 ㉮ 김밥(김+밥), 돌아보다(돌다+보다)
- (2) 접사 : 어근에 붙어 그 뜻을 제한하거나 특정한 뜻을 더하기도 하고, 어떤 기능을 부여하기도 하는 형태소.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다른 어근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구성하는 부분이다.
  - ① 접두사 : 어근 앞에 붙는 접사 ㉮ 맨발, 군말, 풋고추
  - ② 접미사 : 어근 뒤에 붙는 접사<sup>4)</sup> ㉮ 놀이, 지우개, 장난꾸러기

### 2. 단어의 종류



- (1) 단일어 : 하나의 어근(실질 형태소)으로 이루어진 단어
  - ① 어근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단어 ㉮ 감, 집, 가을, 어머니
  - ② 어근 하나와 어미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 ㉮ 푸르다, 먹다
- (2) 복합어 :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
  - ① 파생어 : 어근의 앞이나 뒤에 접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 ㉮ 풋고추, 지우개
  - ② 합성어 :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 ㉮ 김나무, 가을바람
- ㉮ 단어의 종류 확인하기 : ㉠ 바다, ㉡ 논밭, ㉢ 개살구, ㉣ 얼음
  - ㉠ 바다 :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 → 단일어
  - ㉡ 개살구 : '개-'라는 접두사와 '살구'라는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 → 파생어
  - ㉢ 얼음 : '얼-'이라는 어근과 '-음'이라는 접미사로 이루어진 단어 → 파생어
  - ㉣ 논밭 : '논'과 '밭', 두 개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 → 합성어

#### (3)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의 비교

단일어	접다	세다	사과	나무	구름
파생어	잡 <sup>히</sup> 다	드 <sup>세</sup> 다	풋 <sup>사</sup> 과	나무 <sup>꾼</sup>	먹 <sup>구</sup> 름
합성어	불 <sup>잡</sup> 다	굳 <sup>세</sup> 다	사 <sup>과</sup> 줄	길 <sup>나</sup> 무	구 <sup>름</sup> 다 <sup>리</sup>

- ① 파생어에서 밑줄 친 '-히-', '-드-', '-풋-', '-꾼', '-먹-'은 모두 '접사'이다.
- ② 합성어에서 밑줄 친 '불-', '굳-', '줄', '갑', '다리'는 모두 '어근'이다.

### 3. 파생어의 형성

- (1)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 : 접두사가 어근의 앞에 붙어 파생어를 형성하는데, 이때 접두사는 품사의 변화 없이 어근의 뜻만 제한한다.

#### | 『독서와 문법』 교과서 속 '접두사'가 붙은 파생어 목록 |

종류	더하는 뜻	㉮
군-	쓸데없는	군말, 군소리, 군살
	기외로 더한, 덧붙은	군사람, 군식구
덧-	거듭된, 겹쳐 신거나 입는	덧니, 덧버선, 덧신
	거듭, 겹쳐	덧대다, 덧붙이다
되-	도로	되돌아가다, 되찾다, 되팔다
	도리어 또는 반대로	되꼴리다, 되넘겨준다
	다시	되살리다, 되새기다, 되풀다
뒤-	몹시, 마구, 온통	뒤덮다, 뒤섞다, 뒤엎기다, 뒤흔들다
	반대로 또는 뒤집어	뒤바꾸다, 뒤엎다
맨-	다른 것이 없는	맨눈, 맨발, 맨발, 맨손, 맨입

#### 3) 어근, 접사, 어간, 어미의 구분

어근	단어의 중심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
접사	단어의 부차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
어간	용언 활용 시 변하지 않는 부분
어미	용언 활용 시 변하는 부분

예를 들어, '먹이다'에서 어근은 '먹-'이고, 어간은 '먹이-'이다. 그리고 '눈물'에서 '눈'과 '물'은 어근이고 어간은 없다. 어근은 단어의 형성을 다룰 때, 어간은 용언의 활용을 다룰 때 쓰이는 개념이다.

#### 4) 접미사

접미사는 접두사와 달리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예를 들어, 명사 어근 '발'에 접두사 '맨-'이 결합하면 '맨발'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맨발'의 품사는 그대로 명사이다. 그리고 명사 어근 '사기꾼'에 접미사 '-꾼'이 결합하면 '사기꾼'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사기꾼'의 품사도 그대로 명사이다. 그런데 용언의 어간이면서 어근인 '놀-'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면 '놀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놀이'의 품사는 명사로 변화한다. 이와 같이 어근의 품사를 바꿔 주는 접사를 '지배적 접사'라고 한다.

#### 5) 합성어와 구/절의 구분

합성어는 두 개 이상의 어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나 '절'과 유사하여 혼동을 줄 수 있다. 합성어와 구/절을 구별하는 몇 가지 검증 방법이 있다.

- ㉠ a 작은 형 : (눈이) 작은 형  
b 작은형 : \*눈이 작은형
- ㉡ a 들 것 : 너희가 가서 [같이 들] 것을 가져오너라.  
b 들것 : 너희가 가서 같이 [들것] 을 가져오너라.

첫째, 의미 변화 유무를 점검하여 구별할 수 있다. 합성어는 새로운 의미의 단어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 변화를 수반하는 일이 많지만, 구나 절은 이러한 의미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다. 합성어 '작은형'은 '(눈이) 작은 형'이 아니라 '말 형이 아닌 형'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 '들것'은 '들 물건'이 아니라 '한자나 물건을 운반할 때 쓰는 기구'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둘째, 구성 요소가 분리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여 구별할 수 있다. 합성어의 구성 요소들은 결합력이 강하다. 따라서 구성 요소들을 분리하여 그 사이에 다른 성분 따위를 끼워 넣을 수 없다. 그러나 구나 절은 두 개 이상의 어절로 구성된 것이므로 어절 사이에 다른 성분을 넣을 수 있다. 곧, ㉠의 a에서 '작은 형'은 '작은 눈의 형'으로 '작은'과 '형' 사이에 다른 성분이 들어갈 수 있지만, ㉡는 그럴 수 없다.

① '웃-과 '웃'

접두사 '웃-'은 아래위의 대립이 없는 몇몇 명사 앞에 붙어 '위'의 뜻을 더한다. 이때 '아래'와 '위'의 대립이 있는 명사 앞에는 '윗'을 쓴다. 곧, '아랫니', '아랫도리', '아랫목'처럼 대립하는 말이 있는 경우는 '윗니', '윗도리', '윗목'이 된다. 참고로, '윗'은 접두사가 아니라 명사 '위'에 사이사잇을 넣은 표기이다.

② 접미사 '-(으)ㄴ'

'-(으)ㄴ'은 명사형 어미와 접미사의 2가지가 있어서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 ㉠ 오늘도 매우 즐거움.
- ㉡ 독서는 나에게 큰 즐거움을 준다.

㉠에서의 '-(으)ㄴ'은 명사형 어미이고, ㉡에서의 '-(으)ㄴ'은 동사나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의 '즐거움'은 '매우'라는 부사의 수식을 받기 때문에, 품사가 용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의 '즐거움'은 '즐겁다'의 어간 '즐겁-'에 명사형 어미 '-(으)ㄴ'이 붙으면서 해당 용언이 명사의 형태처럼 보이는 것이다(명사형이지 명사로 품사가 바뀐 것이 아니다). 이에 비해 ㉡의 '즐거움'은 관형어 '큰'의 수식을 받고, 뒤에 '을'이라는 조사가 결합되어 있다. 조사는 일반적으로 '체언' 뒤에 결합하므로 '즐거움'은 체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접미사는 해당 어근의 품사를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의 '즐거움'은 '즐겁다'의 어근 '즐겁-'에 접미사 '-(으)ㄴ'이 붙어 만들어진 명사이다.

새-/시-	매우 질고 선명하게	새빨갳다/시뻘갳다
셋-/잇-	매우 질고 선명하게	셋노랗다/잇누렇다
웃-	위	웃돈, 웃거름, 웃어른 ①
참-	진짜 또는 진실하고 올바른	참사랑, 참똥
치-	위로 향하게 또는 위로 올려	치뜨다, 치받다, 치숙다
햇-	그 해에 난	햇감자, 햇곡식, 햇과일, 햇밤
	얼마 되지 않은	햇병아리
헛-	이유 없는, 보람 없는	헛고생, 헛기침, 헛소문, 헛수고, 헛말
	보람 없이, 잘못	헛살다, 헛돌다, 헛디디다, 헛먹다

(2) 접미사에 의한 파생어 : 접미사가 어근의 뒤에 붙어 파생어를 형성하는데, 이때 접미사는 특정한 뜻을 더해 주고, 품사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 "독서와 문법" 교과서 속 '접미사'가 붙은 파생어 목록 |

종류	더하는 뜻	예
-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간단한 도구	땃개, 따개, 마개, 지우개
	그러한 행위를 특성으로 지닌 사람	오줌싸개, 코흘리개
-거리다	그런 상태가 잇따라 계속됨	까불거리다, 반짝거리다, 으르렁거리다, 하늘거리다, 훌쩍거리다
-꾼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잘하는 사람	살림꾼, 소리꾼, 심부름꾼
	어떤 일을 습관적이거나 즐겨 하는 사람	낙시꾼, 노름꾼, 말쑥꾼, 잔소리꾼
	어떤 일 때문에 모인 사람	구경꾼, 일꾼
-뜨리다	강조	깨뜨리다, 떨어뜨리다, 밀어뜨리다
-롭다	그러함 또는 그릴 만함	경이롭다, 명예롭다, 순조롭다, 신비롭다, 자유롭다, 평화롭다, 향기롭다, 감미롭다
-보	그것을 특성으로 지닌 사람	검보, 피보, 잠보, 털보
	그러한 행위를 특성으로 지닌 사람	먹보, 울보, 재보
-스럽다	그러한 성질이 있음	복스럽다, 걱정스럽다, 고급스럽다, 멋스럽다, 번덕스럽다, 사랑스럽다, 어른스럽다
-(으)ㄴ ②	명사를 만들	기쁨, 슬픔, 아픔, 외로움, 즐거움, 믿음, 얼음, 웃음, 죽음
-이	명사를 만들	길이, 깊이, 넓이, 놀이, 높이
-장이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	유기장이
-쟁이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	검쟁이, 고집쟁이, 멧쟁이
-질	그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일	가위질, 바느질, 부채질, 톱질
	그 신체 부위를 이용한 어떤 행위	결눈질, 손가락질, 입질, 주먹질
-하다	동사/형용사를 만들	공부하다, 구경하다, 사랑하다, 건강하다, 순수하다, 정직하다, 덜컹덜컹하다, 반짝반짝하다

4. 합성어의 형성

(1) 의미 관계에 따른 합성어의 종류

종류	개념	예
대등 합성어	어근들이 각각 본래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대등하게 결합된 합성어	• 앞뒤(앞+뒤) : 앞과 뒤를 아울러 이르는 말 • 우쭐대(울- + 쪼다) : 울며 부르짖다 • 오가대(오- + 가다) : 일정한 곳을 오고 가다
중속 합성어 (수식 합성어)	한쪽의 어근이 다른 한쪽의 어근을 꾸며 주는 형태의 합성어	• 손수건(손+수건) : 몸에 지니고 다니며 쓰는 얇고 자그마한 수건 • 책가방(책+가방) : 책이나 학용품 따위를 넣어서 들거나 메고 다니는 가방
융합 합성어	어근들이 완전히 하나로 융합하여 어근 본래의 의미와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된 합성어	• 검버섯(검- + 버섯) : 주로 노인의 살갗에 생기는 거 무스름한 얼룩 • 춘추(春秋)(춘+추) : 어른의 나이를 높여 이르는 말

(2) 구성 방식에 따른 합성어의 종류

종류	개념	예
통사적 합성어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법에 따라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	<b>[같은 품사끼리 결합]</b> • 명사+명사 : 고무신, 눈발, 돌다리, 집안, 이슬비 • 관형사+관형사 : 한두, 두세, 이런저런 • 부사+부사 : 곧잘, 이리저리, 강중강중, 생글생글, 풍당풍당
		<b>[관형사와 명사의 결합(관형사의 명사 수식)]</b> • 새해, 온몸, 첫사랑
		<b>[부사와 용언의 결합(부사의 용언 수식)]</b> • 부사+동사 : 못하다, 잘되다 • 부사+형용사 : 다시없다
		<b>[명사와 용언의 결합(명사 뒤에 오는 조사의 생략 ③)]</b> • 명사+동사 : 분반다, 빛나다, 앉사다, 철들다, 힘쓰다 • 명사+형용사 : 값싸다, 남다르다, 맛있다, 배부르다, 손쉽다
		<b>[용언의 관형사형과 명사의 결합(용언의 어간+관형사형 어미+명사)]</b> • 건널목, 앉은키, 큰절, 큰형
비통사적 합성어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	<b>[용언의 연결형과 용언의 결합(어간+연결어미+용언)]</b> • 동사의 어간+연결 어미+동사 : 돌아가다, 뛰어가다, 알아듣다 • 형용사의 어간+연결 어미+형용사(동사) : 쓰디쓰다, 게을러빠지다 ④
		<b>[부사와 명사의 결합(부사의 명사 직접 수식)]</b> • 부술비, 척척박사
		<b>[용언의 어간과 명사의 결합(관형사형 어미 없음) ⑤]</b> • 검버섯, 달밤, 뽕똥, 집칼
		<b>[용언의 어간과 용언의 결합(연결 어미 없음) ⑥]</b> • 동사의 어간+동사 : 굶주리다, 돌보다, 오르내리다 • 형용사의 어간+형용사 : 검붉다, 높푸르다

3 직접 구성 성분 분석 \*\*\*\*

• 직접 구성 성분 : 단어를 두 조각으로 한 번만 나누어 나온 구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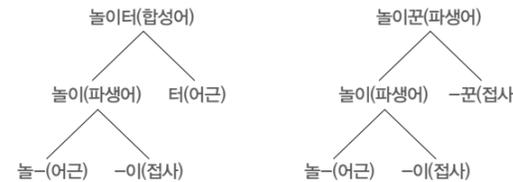
① 1. '놀이터'의 직접 구성 성분 = 놀이 + 터

- '놀이'는 어근 '놀-'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파생어'
- '놀이터'는 파생어 '놀이'에 어근 '터'가 결합하면서 만들어진 '합성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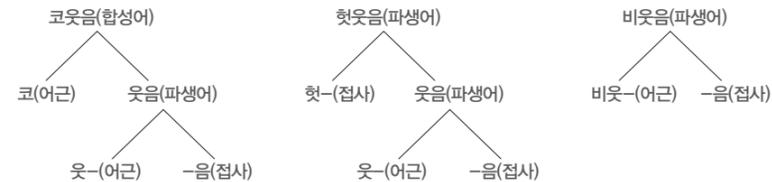
∴ 직접 구성 성분을 분석하여, 어떤 단어가 파생어인지 합성어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2. 수형도로 표현한 직접 구성 성분 분석

• '놀이터', '놀이꾼'의 직접 구성 성분 분석



• '코웃음', '헛웃음', '비웃음'의 직접 구성 성분 분석



③ 조사의 생략과 통사적 합성어

조사, 어미, 접사는 모두 국어의 형식 형태소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하지만 앞서 배운 내용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조사, 어미, 접사는 큰 차이점이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	어미	접사
상대 개념	체언과 결합함	어간	어근
생략 가능 여부	○	×	×
품사 전환 여부	×	×	○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조사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사와 용언이 결합할 때 명사 뒤에 조사가 생략되어 있는 유형의 합성어는 통사적 합성어라고 할 수 있다.

④ '게을러빠지다'가 통사적 합성어인 이유

'게을러빠지다'는 '게을러+빠지다'로 분석되는데, '게을러'를 보자마자 '용언의 어간에 연결 어미가 결합된 형태'임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게을러'는 용언 '게으르다'의 어간 '게으르-'에 모음 어미 '-어'가 결합하면서 어간 끝의 '-르'가 탈락하고 '러'이 덧생겨 만들어진 것으로, '르' 불규칙 용언이다. 비록 어간의 형태가 변화하였지만, '게을러'에는 여전히 어간과 어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게을러빠지다'는 결국 통사적 합성어라고 할 수 있다.

⑤ 어미의 생략

③에서 살펴봤듯이 어미는 생략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즉 반드시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명사를 꾸미는 관형사형 어미가 생략되거나 용언을 이어 주는 연결 어미가 생략된 채 형성된 합성어는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할 수 있다.

⑥ [참고]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방식

- 확장 : 기존의 단어를 결합시켜서 새로운 의미로 사용하는 방식  
㉠ 물레카메라, 킨메이커
- 혼성 : 여러 단어의 일부만을 결합시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방식  
㉡ 짬짜면
- 축약 : 기존 단어에서 중요 어휘부만을 모아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방식  
㉢ 아점, 열공
- 파생 : 어근에 접사를 결합시키는 파생법을 이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방식  
㉣ 도우미, 귀차니스트
- 대체 : 기존 단어에서 일부분을 다른 요소로 바꿔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방식  
㉤ 고기/명태/콩치 + 잡이  
문제/음악/학점 + 은행